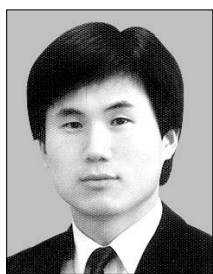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고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패배하고, 진보 정치를 표방해온 민노당이 마침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 여대야소로, 그것도 양당 체제로 재편된 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탄핵으로 야당은 힘의 논리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 힘을 맡겨준 국민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지켰다. 즉,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야당은 간과하였다. 그 결과 탄핵의 부작용 앞에 거대 야당은 침몰한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물론 과거 청산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인간은 과거를 먹고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탄핵 심판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그것을 오늘의 정치에 실현하고 나아가 미래 정치의 방향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탄핵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포용의 정치이다. 탄핵은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조목 조목 따지는 말이 아닌가? 야당은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국민은 대통령권이었다. 대통령은 야당을 포용하지 못해 탄핵을 받았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교수

이제 국민 위한 정치를

고, 야당은 그 대통령을 포용하지 못해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역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과 진보주의를 표방한 민노당을 포용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자신들이 '탄핵'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의 아름다움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끌어안아 조화로운 전체를 만드는 데 있다.

탄핵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변화 내지 개혁의 정치이다. 기업과 정치인이 돈을 매개로 검은 커넥션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어

지럽게 만들었듯이 정치자금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은 이에 분노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가절하와 싸움만을 일삼으면서 결국 탄핵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은 표를 통해 저항하였다. 국민의 열린우리당 선택은 결코 우리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탁월한 그 무엇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에서 생긴 하나의 반작용이다. 단지 "아직 때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은 우리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이

반만은 '혹시나' 하는 국민의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지 않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제는 정말 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정치이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 정치 이외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실 노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정치에만 매달려왔다. 정치는 우리 삶의 전부다. 아니 정치가 삶의 전부인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교육비 문제,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 부동산 투기, 이라크 파병, 남북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가는 정치로 먹고 살지 모르지만 국민은 교육, 경제, 사회 등의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

감성적인 정치는 가능하지 모른다. 하지만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외교 등의 문제는 감성만으로 안 되고, 도덕적인 가치관 아래 합리적인 현실 분석과 뚜렷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생각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그동안 추진돼 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재평가, 문화재보호구역 협의 등 법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하여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 및 재검토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절차상 하자 문제를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라 불리는 자연물 권리소송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간이 아닌 자연물 소송이라는 점에서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도롱뇽이 우는 진짜 이유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롱뇽 소송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라 미비점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연물인 도롱뇽이나 이를 대신하는 환경단체들도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좁은 의미의 법률적 해석으로서 오히려 현행 환경법체계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부 사법당국의 근사적인 시각으로 판단되며,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심한 의구감을 갖게 된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의 법체계는 자연물의 소송주체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자연물을 대변한 환경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의 소송권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재판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현행법상의 법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주체의 권리여부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점은 법원 스스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해 준 판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1960-70년대의 개발위주의 잘못된 관행을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추진해 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는 사실에서 다시금 환경에 대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병민(법학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무감각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 또 음식을 그 힘 따라 보시하고 잡아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어 산 것이 아니라니. <집합참 노사경>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연가자 김해자 씨가 굶주림의 대륙 아프리카, 그 대륙의 곳곳에서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을 만나고 눈물로 쓴 책의 이름이다. 10년 세월을 아프리카 대륙을 뒤돌고 있는 기아와 전쟁의 고통을 지켜보며 쓴 <꽃으로도...>는 요즘 화제인데, 책을 읽는 내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린 긴 눈물과 그 뒤의 두통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다.

멀리 아프리카로 날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1997년 말 다친 IMF 위기 이후 17만 명의 어린이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배를 곯고 있는 사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2천 톤을 넘어섰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 그 처리비용만도 4천억 원이 넘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통계 수치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을 웅변할 뿐이다.

정작 두려운 것은 바로 무감각이다.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무감각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좌표를 잃게 되고, 바른 지향점을 찾아나갈 수도 없다. 육신의 허망함을 자각하고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정신이 있을 때야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때야야 당장 밥을 굶는 사람에게 한끼 밥을, 마음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게 된다. 바른 안목을 키우는 정신과 바른 행으로 나의 무감각을 깨워야 할 때다.

전미희(부산주제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승복 간소화 절실

요즘 조계종 스님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승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제각각이다. 장삼에 대가사를 두르고 있는 스님, 장삼에 일명 반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 오조 가사를 하고 있는 스님, 장삼까지만 입고 있는 스님, 두루마기 위에 대가사를 입고 있는 스님, 동방아위에 대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 적삼 위에 대가사를 하고 있는 스님, 두루마기까지만 하고 있는 스님, 동방아 까지만 입고 있는 스님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심지어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와 적삼만 입고 있는 스님도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스님들의 옷 문화다.

비구의 뜻과 분소의 정신을 한번쯤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스님들의 복장은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다. 게다가 비싸기까지 하다. 요즘은 값비싼 승복을 입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정도다. 스님들에게는 바지와 동방아, 대가사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겨울철에는 내복과 스웨터를 입으면 될 것이다.

법회나 집회, 회의 때 스님들의 복장은 진풍경을 연출한다. 의제를 지키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종류가 너무 많은 점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승복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은 누누이 제기되어 왔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비전은 스님들의 승복을 분소의 정신에 맞게 착용하는 데 그 희망이 있다. 비구 스님(웃다뉴스)

사찰재정 투명화 이뤄야

불교를 믿게 된 지 이제 3년째인 초보 불자다. 그런데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사찰의 재정이 공개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재정을 공개하는 일이 마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인양 생각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적잖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종교는 맑고 청정한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불교는 '결식과 분소'에 바탕을 둔 무소유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 물론 시대와 환경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근본정신마저 변할 수는 없다. 스님이 재산을 모으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재정은 맑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직접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에 후원하는 불자들의 보시를 사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한가지 사찰의 재정이 사회복지와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적극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큰스님들이 법랍이 낮은 스님들이 갖고 있는 토굴만도 못한 곳을 전전하며 흠뻑 받는다는 것은 결국 승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노스님들을 잘 봉양해야 젊은 스님들도 세월이 지난 후 지금같은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해연심(웃다뉴스)

이웃위한 등을 켜자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요즘, 사찰 종무소 앞은 연등을 밝히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세를 이룬다. '아무개 아무개의 무사태평한 한해를 빌며...' '김아무개집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연등을 신성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연등에 비는 불자들의 바람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생각을 했다. 개인의 안위나 가족의 건강과 행복, 개개인이 살아남기조차 각박하고 힘든 게 요즘 세상이라지만, 다들 자신 앞에 놓인 일들만 걱정하고 우려하며 사는 게 아닐까 우려됐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기를',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스러워지기를' 같은 큰마음을 내는 사람이 없나...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때보다 '나눔'과 '사랑'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보다 큰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노력한다면, 부처님이 말하신 정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이웃을 위한 등불을 밝혀봐야겠다. 조선혜(서울 노원구 중계동)

'연대' 민영

심민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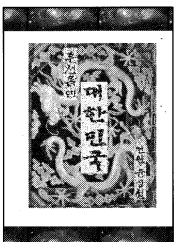
가까운 곳에서 먼저 해결하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후천을 연 대한민국 / 실전 자미두수

▶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국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국시대(2005~ )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건원 윤상철.



노후천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봄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권).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투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서의 사직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걸려지고 통일을 열 庚 鎗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권).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 路의 삼대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壽시대가 열린다(3권).

▶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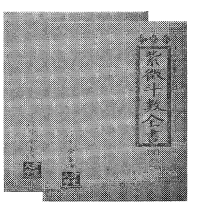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범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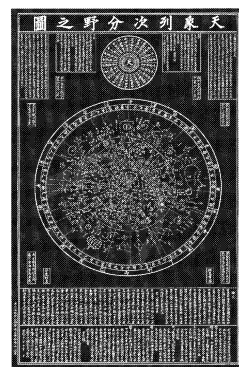
▶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저자: 이두 김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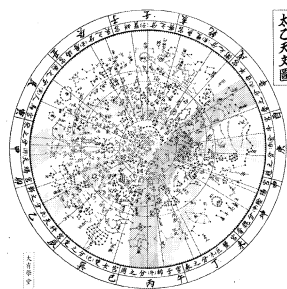


▶ 태을천문도(太乙天文圖)

천상열차분야지도(720×1200)  
태을천문도(720×670mm)  
부록(해설서,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120,000원. 저자: 윤상철  
2004년 3월 15일 수정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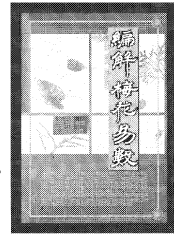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보완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재수정 보완하고, 오운경천(五運經天)의 이론을 덧붙인 「태을천문도」와 설명서. 서예가 김홍구님의 필적과 보관하기 좋게 천에 인쇄하여, 주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6배판 증보판  
20,000원  
저자: 김수길윤상철  
2004년 3월 20일 증보판 발행.



"알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자 점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정학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책수소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

▶ 근간안내

심곡비결, 신기묘산, 현용결미두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대유학당